

아시아교육연구 20권 2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2, pp. 321-347.

<https://doi.org/10.15753/aje.2019.06.20.2.321>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향점수 매칭과 이중차분 추정기법 활용

진현정(田賢貞)*

정혜원(鄭蕙苑)**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 차이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의 고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추적 조사한 중1 4차~6차년도 자료를 경향점수 매칭 방법과 이중차분 추정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공변인들을 통제한 뒤,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봉사활동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고등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학생 개체특성과 시간특성을 고려한 봉사활동 참여의 순수 한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향점수 매칭 전에는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향점수 매칭 후에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따라 고등학생이 느끼는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비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에 비해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시기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 향상에 단순한 봉사활동 참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봉사활동 추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봉사활동, 봉사활동 참여 동기,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 경향점수 매칭, 이중차분 추정기법

* 제1저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chw7@cnu.ac.kr

1. 서론

세계 각국에서는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의 일부로 운영하거나, 봉사활동을 주 활동 목적으로 하는 학생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김덕주, 2009; 이광우 외, 2010) 일찍부터 봉사문화가 정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가 중시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임혜숙 외, 2013). 우리나라의 청소년 봉사활동 정책은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의 일부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한구 외, 1997). 이후 2009 교육과정 개편으로 청소년 봉사활동 정책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김영채, 2010), 최근까지도 각 시도교육청, 국가차원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속 나눔과 배려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봉사활동이 지니고 있는 인지적·정서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지나친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청소년 문화에서도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발생하는 상호간의 고립과 단절,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에 반해 결여된 타인에 대한 배려, 희생과 봉사 정신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이성철, 2014). 특히 단체생활에서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일명 ‘왕따 문화’를 비롯한 학교 폭력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매년 신문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학교 선배·친구 등에 의한 폭행과 협박에 의한 자살’ 등의 기사(뉴스1, 2018.10.18.)는 오늘날 청소년 문화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성과 윤리,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의존성, 책임감, 사회적 연대 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 봉사정신을 길러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봉사활동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봉사활동은 자발성과 무보수성, 이타성을 토대로 한 활동으로 현대 시민사회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봉사활동(허성호, 정태연, 2010; Jacob, 1996)을 통해 여러 대상과의 관계 형성, 사회적 책임감, 연대 의식을 배우게 되고(Rhoads, 1998) 바람직한 공동체적 삶의 목표를 형성하게 된다(문영희, 2003). 즉 타인 지향적 사회참여 활동인 봉사활동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 및 유대감,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봉사활동은 긍정적 자아상과 희생, 봉사와 같은 이타적 정서 함양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박정희, 김지민, 2007; 이금룡, 권기환, 2011).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사회 참여의 기회는 직·간접적으로 진로에 대한 선행적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이금룡, 권기환, 2011).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스스로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하게 되어 청소년의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한 정의적 태도와 인지적 능력이 향상된다(안재진, 김선숙, 이경상,

2017). 특히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진로발달의 중요한 단계인 청소년기에(김충기, 2002) 진로 탐색과 선택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고등학교 시기의 자발적 실천과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봉사활동은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문성호, 정정은, 한지연, 2009; 이성은, 2009), 가치 있는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Billig, Root, & Jesse, 2005).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 봉사활동 정책을 교육과정에 제도화,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995년 교육개혁방안의 일부로 제도화된 봉사활동 정책은(김한구 외, 1997), 2009 교육과정 개편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운영되어 왔다(김영재, 2010). 그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봉사활동 정책의 효율적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봉사활동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교육부, 2016.12.). 과거 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이 정부 주도의 봉사활동 제도권 내 편입, 관련된 법제도 구축, 중앙지원센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2013년부터는 제2차 국가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봉사활동 정책의 관리 및 사업 영역의 체계화 등 본격적인 국가차원의 체제 정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1.). 최근에도 교육부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별 효과적인 봉사활동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적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청소년기 발달에 봉사활동이 지닌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봉사활동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하나의 심리적 구인 또는 만족도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더군다나 봉사활동의 목적과 취지 및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심리 요인인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진로를 결정하는 진로발달의 중요한 단계인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진로정체감에 봉사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봉사활동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봉사활동이 지닌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기 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해 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시간 채우기 식 형태로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정규석,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 과업에 봉사활동의 참여 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함과 동시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를 함께 분석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봉사활동 참여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공동체 의식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의미하는 진로정체감(안재진 외 2017; Holland, 1985)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격적인 봉사활동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단순한 봉사활동 참여 여부가 아닌 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의 차이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참여와 같은 처치가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때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향점수 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하였다(Rosenbaum & Rubin, 1983). 또한 봉사활동 참여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순수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인과효과를 추정할 때 관찰되지 않는 교란 변수를 통제하여 처치의 순수한 한계 효과만을 추정할 수 있는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DID) 추정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Angrist & Pischke, 2009).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효과적인 봉사활동 추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시민의식, 사회성 함양, 이타성, 진로성숙도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정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봉사활동 정책

우리나라의 청소년 봉사활동 정책은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의 일부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화되었다(김한구 외, 1997).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현대 사회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개인주의, 경쟁주의를 타파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 및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구축’을 제시하였다(김정배, 고원영, 정익재, 1999). 이 과제의 주요 추진사항 중 하나가 학생의 봉사활동을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이를 의무화하였다(박관숙, 김성희, 2012). 이처럼 정부에서는 봉사활동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제도화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자 했다(여성가족부, 2014; 정규석, 2002). 이전에는 비공식적이고 주변적인 영역에서 자선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로만 존재하던 봉사활동이 9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봉사활동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도권 내

에 편입되고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1.).

이와 같은 봉사활동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이후 청소년 봉사활동 정책은 2009 교육과정 개편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김영채,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된 특징은 ‘창의인성교육’으로 단편적 지식, 이해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며, 나눔과 봉사 활동 및 진로 탐색 등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를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교과 외 활동인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하여 제도화하였다(크레존, 2018.12.10.). 창의적 체험활동 내의 봉사활동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웃돕기 활동(지역사회활동, 친구돕기활동), 환경보호 활동(환경정화활동, 자연보호활동), 캠페인 활동(공공질서, 학교폭력 예방 등 각종 캠페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크레존, 2018.12.10.).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 2016.12.).

최근에도 교육부는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정책 추진의 궁극적 목표를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6.12.). 이와 같은 교육부의 계획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각 시도별, 학교 여건에 맞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부산광역시 교육청, 2018.3. 등). 이처럼 우리 사회 속 나눔과 배려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봉사활동이 지닌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봉사활동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봉사활동이 지닌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봉사활동과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

봉사활동은 개인과 기관,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가하거나 협력하는 행위로 자발성과 무보수성, 이타성을 토대로 한다(김욱, 송미영, 2006; 허성호, 정태연, 2010). Sheckley와 Keeton(1997)은 학습의 개념을 포함하여 봉사활동을 정의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봉사활동은 교육적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함께 현대 시민사회의 핵심적 요소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허성호, 정태연, 2010). 특히 봉사활동은 자아실현적 특성, 자발성, 이타성, 사회성, 공동체성의 특성을 지닌다

(양창삼, 1998). 이들 특성 요인은 공통적으로 봉사활동이 참여자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게 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하거나 발전하는 기회를 갖게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봉사활동의 경험은 자아관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의 밑바탕과 건강한 자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허성호, 정태연, 2010). 특히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소속감 및 유대감을 의미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Cohn, 2008). 더욱이 봉사활동의 이타성, 사회성, 공동체성과 같은 특성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Super(1969)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직업의 선호, 자아개념 등은 시간의 지남과 경험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본질적 진로 발달의 과정은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적 상황과 타협을 하게 되며 학교 활동, 상담,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진로를 구체화하게 된다(O'Dea & Abraham, 2000). 따라서 진로 탐색과 선택을 위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의미하는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안재진 외, 2017).

이와 같은 봉사활동의 인지적, 정의적 가치와 함께 청소년기 학생들의 시민의식이나 대인관계 발달, 진로성숙 등과 같은 인성 함양과 심리·사회적 발달에 봉사활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김성훈, 2015; 문성호 외, 2009; 이성은, 2009; Roberts & Yang, 2002; Wade, 2000). 특히 봉사활동이 지닌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관우, 남진열, 2011; 김혜진, 2014; 박현정, 이진실, 이용석, 2015; 안재진 외, 2017; 전명숙, 박선녀, 2016). 공동체 의식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소속감, 상호 헌신 및 의존성으로 정의된다(박재숙, 2010). 고관우와 남진열(2011)의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경험이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참여 여부가 공동체 의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재진 외(201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한 봉사활동 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으며, 전명숙과 박선녀(2016)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시간과 만족도가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현정 외(2015)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체계적 차이를 통제하여 동질성을 확보하고 봉사활동의 효과를 보다 엄밀히 추정하고자 경향점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봉사활동에 자발적 동기로 참여할수록,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봉사활동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혜진(2014)은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의 잠재유형을 파악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잠재유형과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의 관련

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른 체험활동에 비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집단이 공동체 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공동체 의식과 함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의미하는 진로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다(안재진 외, 2017).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진로발달의 중요한 단계이며 시점이다(김충기, 2002). 따라서 청소년기에 진로 탐색과 선택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즉 청소년기 다양한 사회 참여의 직·간접적 기회는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선행적 경험(이금룡, 권기환, 2011)과 진로탐색의 기회가 되어 청소년의 정의적 태도와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켜주게 된다(안재진 외, 2017). 더욱이 스스로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봉사활동의 경험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며 자발성과 무보수성, 이타성에 토대를 둔(허성호, 정태연, 2010), 가치 있는 활동인 봉사활동(문성호 외, 2009; 이성은, 2009; Billig, Root, & Jesse, 2005)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진로 탐색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진로정체감과 봉사활동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외에 봉사활동과 진로성숙도, 진로태도 등에 대한 연구나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왔다(김희수, 최정선, 2015;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허정철, 2013). 그러나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영향력을 측정하며 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의 차이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봉사활동과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성별,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 지역사회 인식, 부모양육방식, 학교생활적응 변인(고관우, 남진열, 2011; 김선숙, 안재진, 2012; 김지혜, 2012; 박관숙, 김성희, 2012; 박재숙, 2010; 박현정 외, 2015; 서봉연, 김원영, 김경식, 2016; 안재진 외, 2017)들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여 봉사활동 참여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영향력을 분석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따른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 차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중1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중1패널 자료는 2010년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식으로 추출된 2,351명을 대상으로 2010년(제1차) 중학교 1학년부터 2016년(제7차) 대학교 1학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의 성장·발달 과정을 조사한 종단 연구 자료이다(이종원 외, 2016).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패널 중 고등학교 1학년(2013년, 4차)부터 고등학교 3학년(2015년, 6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사례 2,351명 중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응답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한 1,95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변인 구성

본 연구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과 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 체제 정립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관계부처 합동, 2018.1.) 2013년 이후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참여 여부 처치 시점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을 기준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을 처치집단,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각 시점별 봉사활동 참여집단 및 비 참여집단의 사례 수는 다음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봉사활동 참여 여부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공동체 의식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참여하게 된 동기에 따른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진로에 대해 깊게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정체감 변인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표 2>와 같다. 이 중 봉사활동 참여 여부, 성별의 경우 재코딩하였으며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 정서문제, 지역사회 인식, 부모의 양육방식(애정), 학교생활적응 변인들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역 코딩하였다. 또한 해당 변인들은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변인 중 정서문제 관련 변인들은 모두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일부 변인들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하여 일부 문항들을 삭제한 뒤 일부 문항들을 연구 도구로 활용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공변인들은 봉사활동 참여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고자 청소년기의 봉사활동과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성별,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 지역사회 인식, 정서문제, 부모양육방식, 학교생활적응 변인(고관우, 남진열, 2011; 김선

숙, 안재진, 2012; 김지혜, 2012; 박관숙, 김성희, 2012; 박재숙, 2010; 박현정 외, 2015; 안재진 외, 2017)으로 설정하였으며 공변인이 집단 구성 또는 결과변인인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었는지 받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Brookhart et al, 2006), 처치변인과 종속변인보다 앞선 시점인 고등학교 1학년에 측정된 문항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공변인들에 대한 사전 동등성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봉사활동 참여 동기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를 ‘비자발적 동기에 의한 봉사활동 참여’로, 그 외의 ‘교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친구를 사귀기 위해’ 등으로 응답한 경우를 ‘자발적 동기에 의한 봉사활동 참여’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시점별 사례 수

고등학교 1학년(4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5차년도)	
봉사활동 참여집단	봉사활동 비 참여집단	봉사활동 참여집단	봉사활동 비 참여집단
830(42.5%)	1,122(57.5%)	886(45.4%)	1,066(54.6%)

〈표 2〉 주요 변인 구성 및 설명

구분	변인 설명	시점	변인값	신뢰도	비고	
처치변인	봉사활동 참여 여부(1)	고2	0=비참여, 1=참여	-	재코딩	
독립변인	봉사활동 참여 동기	고2	0=비자발적, 1=자발적	-	재코딩	
종속변인	공동체 의식(4)	고1	1=전혀그렇지않다	0.726		
		고3	2=그렇지않은편이다 3=그런편이다	0.728	역코딩	
		고3	4=매우그렇다	0.885	역코딩	
공변인 (통제변인)	성별(1)		0=남, 1=여	-	재코딩	
	자아탄력성(14)			0.832	역코딩	
	삶의 만족(3)			0.816	역코딩	
	정서문제	주의집중(7)			0.772	역코딩
		공격성(6)			0.793	역코딩
		사회적 위축(5)	고1	1=전혀그렇지않다	0.878	역코딩
		우울(10)		2=그렇지않은편이다 3=그런편이다	0.891	역코딩
		지역사회인식(5)		4=매우그렇다	0.786	역코딩
	부모양육방식	애정(3)			0.750	역코딩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4)			0.764	역코딩
학교규칙(5)				0.754	역코딩	
교사관계(5)				0.808	역코딩	

주. 변인 설명의 괄호 안의 값은 문항 수를 의미함

3. 연구 방법

1) 경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

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 간의 연계 효과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존재하는 선택 편의를 최소화하며 인과효과를 검정할 수 있는 경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였다(Rosenbaum & Rubin, 1983). 이때 경향점수는 다음 (식1)과 (식2)와 같은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Westreich, Lessler, & Funk, 2010). 아래 식에서 T_i 는 처치여부를 의미하며 0과 1의 값을 갖고 $T_i = 1$ 이라면 봉사활동에 참여한 처치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X_{1i} \dots X_{Ki}$ 는 <표 2>에 제시된 공변인들을 의미한다.

$$(식1) \eta_i = \ln\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1 X_{1i} + \dots + \beta_K X_{Ki} = \beta_0 + \sum_{k=1}^K \beta_k X_{ki}$$

$$(식2) \Pr(T_i = 1 | X) = \frac{e^{\eta_i}}{1 + e^{\eta_i}}$$

경향점수 추정 이후 매칭(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매칭 방법은 처치집단 피험자의 경향점수와 가장 유사한 경향점수를 가진 통제집단 피험자를 찾아 짝짓는 방법을 의미하며(Rosenbaum & Rubin, 1983),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칭 방법 중 greedy 매칭의 최근린법(nearest neighbor matching)(Rubin, 1973)과 최대 경향점수거리(caliper) 매칭 전략(Althausser & Rubin, 1970)을 활용하였다. 이때 최대 경향점수 거리는 Rosenbaum과 Rubin(1983)이 제시한 기준인 경향점수의 0.25 표준편차를 활용하였으며 경향점수 매칭을 위해 R 3.1.3 프로그램의 MatchIt(Ver. 3.0.2)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2)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DID) 추정기법

본 연구에서는 경향점수 매칭 방법과 함께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처치의 효과를 추정할 때 처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찰되지 않은 선택편의를 제거하여 정책 또는 처치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방법인 이중차분 방법을 활용하였다(Hanushek & WoBmann, 2006). 하지만 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간의 연계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조사가 처치시점 이전인 고1 시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치 이전 시점에 진로

정체감과 비교하기 위한 유사한 변인 값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중차분 방법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방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진로정체감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향점수 매칭을 통해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두 집단 간 사전 동등성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이중차분 방법을 실시하였는데, 이중차분 방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시점 간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비교하여 특정 정책 혹은 처치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방법이다. 이중차분이란 기준시점과 처치시점 간 처치집단의 종속변수 변화량에서 통제집단의 종속변수 변화량을 차분하여 구한 추정량을 의미하며 이를 개체·시간 특성을 감안한 정책 혹은 처치변인의 순수한 한계 효과로 본다(민인식, 최필선, 2009; 정동욱 외, 2013, Hanushek & WoBmann, 2006). 본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에 대한 봉사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이중차분 수식은 다음 (식3)과 같다(손호성, 2018).

$$(식3) Y_{it} = \beta_0 + \beta_1 D_t + \beta_2 T_i + \beta_3 (D_t \times T_i) + \epsilon_{it}$$

이때 Y_{it} 는 종속변수인 공동체 의식 값이고 D_t 는 시간 더미변수로 기준시점인 고1시점이면 0, 처치시점인 고2시점이면 1의 값을 갖는다. 또한 T_i 는 처치여부를 의미하며 0과 1의 값을 갖고 $T_i = 1$ 이라면 봉사활동에 참여한 처치집단을 의미한다. β_3 는 시간 더미변수와 처치여부 구분 변수의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로 봉사활동 참여 전과 후의 참여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이중차분 추정량($(\overline{Y}_{11} - \overline{Y}_{10}) - (\overline{Y}_{01} - \overline{Y}_{00})$), 즉 봉사활동 참여 순수 한계 효과를 의미한다(손호성, 2018; 민인식, 최필선, 2009; Hanushek & WoBmann, 2006). 이때 $\overline{Y}_{11} - \overline{Y}_{10}$ 은 처치집단의 시점에 따른 차이를 의미하며 $\overline{Y}_{01} - \overline{Y}_{00}$ 은 통제집단의 시점에 따른 차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중차분 분석을 위해 STATA 15.1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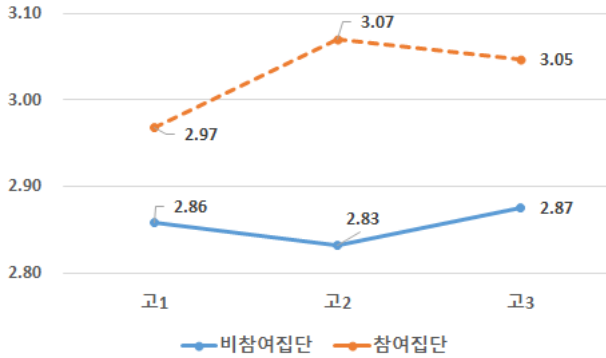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참여 동기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함에 있어 고려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왜도 0.029~0.273, 첨도 0.028~1.234로 정규분포 가정의 기준인 '1왜도|<2, |첨도|<4' (Hong, Malik, & Lee, 2003)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처치변인인 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종속변인인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 변인들과 공변인으로 설정한 변인들이 일부 변인을 제외하고는 변인들 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구체적으로는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 지역사회인식, 애정의 부모양육방식, 학교생활적응, 봉사활동 참여 동기 변인들과 봉사활동 참여,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는 정적이며, 부정적 의미를 갖는 정서문제인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변인과 봉사활동 참여,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 변인과의 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 이론적 내용(고관우, 남진열, 2011; 김지혜, 2012; 박관숙, 김성희, 2012; 박재숙, 2010; 박현정 외, 2015; 서봉언 외, 2016; 안재진 외, 2017)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2.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영향력을 경향점수 방법과 이중차분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봉사활동 참여집단과 비 참여집단 간 학년이 변화함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때 봉사활동 참여집단과 비 참여집단은 고2 시점을 기준으로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지어 처치구분 변인을 생성하였다. 특히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부 사례는 제거하여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공동체 의식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는 시점에 봉사활동 참여집단의 공동체 의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고 그에 반해 비 참여집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고2 시점에 두 집단 간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본격적인 봉사활동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시점인 고2 시점을 처치시점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공동체 의식 변화 양상

청소년기에 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경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다양한 공변인을 고려하여 처치집단에 할당될 확률인 경향점수를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으며(Westreich, Lessler, & Funk, 2010), 추정된 경향점수를 통해 집단 간 매칭을 실시하였다.

이때 전체 연구대상 1,952명 중 분석변인에 대해 충실히 응답한 1,934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 중 1,050명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884명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처치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경향점수 매칭을 적용한 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통제집단)은 583명,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처치집단)은 881명으로 표집 되었다. 경향점수 매칭 전과 후의 집단 간 동등성(covariate balance)이 잘 확보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화 차이 계수(standardized mean difference)를 확인하였다(Ho et al., 2007). 경향점수 매칭 전·후의 표준화 차이 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그 결과, 경향점수 매칭 전에 일부 공변인들의 표준화 차이 계수가 평가 기준인 0.1 표준편차(Austin, 2011)보다 큰 값을 가졌지만, 매칭 후에는 모든 변인들의 표준화 차이 계수가 기준 0.1 표준편차를 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처치 이전 시점의 사전 공변인에 대한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매칭 전·후의 두 집단 간 경향점수 분포의 변화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았다([그림 2] 참조).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칭 전 다른 분포 양상을 보인 두 집단이 경향점수 매칭 후 비슷한 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봉사활동 참여	공동체 의식(고1)	공동체 의식(고3)	진로 정체감	봉사활동 참여 동기	성별	자아 탄력성	삶의 만족	주의 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지역사회 인식	부모양육 방식_애정	학습 활동	학교 규칙	교사 관계
공동체의식 (고1)	.070**																
공동체의식 (고3)	.070**	.391***															
진로정체감	.049	.193***	.305***														
봉사활동 참여 동기	-	.157***	.209***	.056													
성별	.025	.085**	.086***	-.023	.012												
자아탄력성	.006	.348***	.175***	.200***	.154***	-.140***											
삶의 만족	.015	.150***	.123***	.123***	.070*	-.130***	.423***										
주의집중	-.037	-.170***	-.122***	-.110***	.008	-.027	-.129***	-.179***									
공격성	-.008	-.132***	-.097***	-.063*	.056	.080**	-.193***	-.282***	.478***								
사회적 위축	-.001	-.185***	-.147***	-.134***	-.099**	.038	-.314***	-.297***	.323***	.321***							
우울	.004	-.153***	-.121***	-.119***	-.021	.194***	-.312***	-.593***	.370***	.557***	.513***						
지역사회 인식	.006	.251***	.122***	.088***	.083*	-.145***	.314***	.279***	-.113***	-.162***	-.196***	-.238***					
부모양육 방식_애정	.025	.188***	.157***	.111***	.066	-.019	.292***	.374***	-.181***	-.156***	-.152***	-.305***	.173***				
학습활동	.043	.319***	.205***	.168***	.095**	-.023	.311***	.375***	-.333***	-.203***	-.197***	-.320***	.211***	.314***			
학교규칙	.019	.341***	.203***	.131***	.090**	.072**	.231***	.137***	-.310***	-.199***	-.106***	-.114***	.174***	.192***	.437***		
교사관계	.018	.323***	.156***	.144***	.115***	-.082**	.338***	.265***	-.187***	-.142***	-.206***	-.222***	.306***	.274***	.391***	.366***	
평균	-	3.015	3.019	3.026	-	-	2.811	2.835	2.195	1.953	2.222	1.890	2.661	3.019	2.894	2.980	2.916
표준편차	-	0.503	0.488	0.593	-	-	0.384	0.602	0.480	0.523	0.689	0.554	0.568	0.565	0.495	0.471	0.571
왜도	-	0.060	0.077	-0.062	-	-	0.170	0.108	-0.217	0.029	-0.052	0.134	0.077	-0.273	-0.273	0.042	0.037
첨도	-	0.436	0.666	-0.612	-	-	1.234	0.123	0.326	-0.488	-0.497	-0.491	0.415	0.364	1.128	0.799	-0.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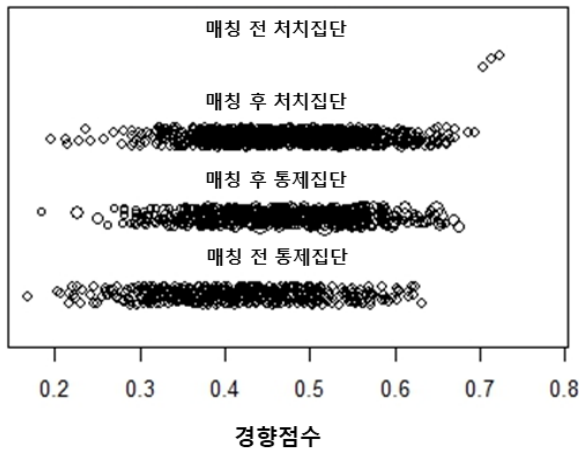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4〉 경향점수 매칭 후 집단 간 동등성 검정

		표준화 차이 계수	
		경향점수 매칭 전	경향점수 매칭 후
성별		0.213	-0.037
자아탄력성		0.035	-0.025
삶의 만족		0.045	0.001
정서문제	주의집중	-0.161	-0.017
	공격성	-0.043	0.221
	사회적 위축	-0.060	0.031
	우울	0.034	-0.006
지역사회인식		0.056	-0.001
부모양육방식	애정	0.116	-0.007
	학습활동	0.256	0.034
학교생활적응	학교규칙	0.173	0.034
	교사관계	0.125	-0.012

주. Austin(2011)의 표준화 차이 계수 평가 기준에 따라 0.1 표준편차보다 큰 값을 진하게 표시

경향점수의 분포



[그림 2] 경향점수 매칭에 따른 경향점수 분포의 차이

이와 같이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사전 공변인에 대한 동등성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봉사활동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향점수 매칭 전에는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경향점수 매칭 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다시 말해, 경향점수 매칭 후 사전 공변인들에서 집단 간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 후에는 공동

체 의식에 대한 봉사활동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단 간 공동체 의식 정도를 살펴보면, 경향점수 매칭 전과 후에 모두 봉사활동 비 참여집단보다 참여 집단의 공동체 의식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공동체 의식	경향점수 매칭 전			경향점수 매칭 후		
	봉사활동 비 참여 집단 평균	봉사활동 참여 집단 평균	<i>t</i>	봉사활동 비 참여 집단 평균	봉사활동 참여 집단 평균	<i>t</i>
	2.927	3.048	5.404***	2.977	3.047	1.842

*** $p < .001$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도 공동체 의식과 마찬가지로 경향점수 매칭 전에는 봉사활동 참여가 진로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향점수 매칭 후에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봉사활동의 참여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6〉 참조). 이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사전 동등성이 확보된 후에는 봉사활동 참여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진로정체감 정도를 살펴보면, 경향점수 매칭 전과 후 모두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정체감 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봉사활동 참여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진로 정체감	경향점수 매칭 전			경향점수 매칭 후		
	봉사활동 비 참여 집단 평균	봉사활동 참여 집단 평균	<i>t</i>	봉사활동 비 참여 집단 평균	봉사활동 참여 집단 평균	<i>t</i>
	2.986	3.051	2.412*	2.990	3.049	1.771

* $p < .05$

다음으로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음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인과효과 검정 결과와 유사하게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학생 개체특성과 시간특성을 고려한 봉사활동 참여의 순수한 한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1 시점의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공동체 의식 차이를 고려할 때 고3 시점의 두 집단 간의 공동체 의식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DID 분석 결과)

공동체 의식	계수	표준오차
고등학교 1학년		
통제집단	2,972	
처치집단	3,044	
차분 값	0.072**	0.026
고등학교 3학년		
통제집단	2,977	
처치집단	3,047	
차분 값	0.070**	0.026
봉사활동 참여 순수 한계효과 (<i>Diff-in-Diff</i>)	-0.002	0.037

** $p < .01$

3.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은 참여 동기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타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봉사활동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조휘일, 1999). 자원봉사활동은 가치 있는 삶의 체험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게 한다(문영희, 2003; 류기형, 박경일, 1998). 또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통찰력과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경험을 제공해주며 새로운 기술 습득과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미래의 자신의 직업 및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김범수 외, 2001; 문영희, 2003). 따라서 스스로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봉사활동의 경험은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고양과 함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타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봉사활동을 통해서는 공동체적 연대감, 타인을 배려하는 의식,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목표 설정, 적성을 탐색하는 등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울 것이다. 즉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비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 정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분석결과와 같이, 다양한 공변인들을 통제한 후에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봉사활동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더욱이 고등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에 봉사활동 참여의 순수한 한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따라 고등학생이 느끼는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표 8〉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계획하고 자발

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비지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보다 공동체 의식 정도가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표 8> 참조). 이는 단순한 봉사활동 참여 여부보다는 어떠한 목적과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결과일 것이다.

<표 8>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집단	비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집단	차이	표준오차	<i>t</i>
3.130	2.919	0.211	0.034	6.243***

*** $p < .001$

이와 마찬가지로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진로정체감이 비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진로정체감과 비교하여 0.09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표 9> 참조). 다시 말해 봉사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수록 타의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의미하는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봉사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의 단순한 참여 여부 보다는 봉사활동에 어떠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며 봉사활동은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어야 함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9>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집단	비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집단	차이	표준오차	<i>t</i>
3.098	3.007	0.091	0.043	2.122*

*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가 중시되면서 국가·사회 차원의 주목을 받고 있는 봉사활동(임혜숙 외, 2013)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검증하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활동인 봉사활동(문성호 외, 2009; 이성은, 2009;

Billig, Root, & Jesse, 2005)이 진로발달의 중요한 단계인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경향점수 방법과 이중차분 추정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봉사활동 참여집단과 비 참여집단 간 학년 변화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집단 간 차이가 큰 폭으로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학년이라는 고등학교 적응 시기를 지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의존성이 증대되는 2학년으로의 학년 변화 시기에 사회 참여 활동인 봉사활동 참여 여부가 학생들이 느끼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이는 해당 시기에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봉사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증점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봉사활동 참여 여부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향점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경향점수 매칭 전에는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향점수 매칭 후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사전 동등성이 확보된 다음에는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중차분 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 학생 개체특성과 시간특성을 고려한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봉사활동 참여의 순수 한계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 및 진로 관련 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로(고관우, 남진열, 2011; 김혜진, 2014; 박현정 외, 2015; 안재진 외, 2017; 전명숙, 박선녀, 2016) 봉사활동 참여 여부는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서 나아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따라 고등학생이 느끼는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봉사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수록 타의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보다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봉사활동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봉사활동 참여 여부 보다는 어떠한 목적과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지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 봉사활동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이루는 활동이 되어야 함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교 재학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하기에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상호의존성, 책임감, 사회적 연대 의식을 경험하고 확장해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한 정의적 태도와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속감 및 유대감과 같은 현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가장 효과적이며 도움이 되는 활동은 긍정적 자아상, 희생과 봉사 와 같은 이타적 정서 함양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박정희, 김지민, 2007; 이금룡, 권기환, 2011) 봉사활동일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문성호 외, 2009; 이성은, 2009), 가치 있는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는(Billig, Root, & Jesse, 2005) 봉사활동이 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진로에 대한 명확한 신념인 진로정체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봉사활동 정책의 질적인 향상을 줄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학년이 변화하는 시기에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의 집단 간 차이가 큰 폭으로 변화한다는 점은 해당 시기에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중점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학년이 변화하는 시기에 적절한 학생 중심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당 시기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형성되는 시점인 만큼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봉사활동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과 내용, 학교폭력예방, 인성,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와 봉사활동을 연계시켜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 모델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각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각 시도별, 학교의 여건에 맞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8.3. 등). 이에 각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의 우수 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된다면 우수 봉사활동 모델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고 봉사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봉사활동 참여 여부가 아닌 어떠한 목적과 동기에 의한 참여인지 초점을 두어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봉사활동은 자기 개발과 성장, 시민적 자질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정종우 외, 2008). 하지만 이러한 봉사활동은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봉사활동 참여에 분명한 자신만의 목적의식을 지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분명한 동기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봉사활동을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인식하여 단순히 시간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정규석, 2002). 이와 같은 오늘날의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학생들이 느끼는 입시의 중압감,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를 결여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사회전반에 걸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학교-지역사회에 이르는 봉사활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게는 각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어 봉사활동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자발성과 적극성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관우, 남진열(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관계부처 합동(2018.1.).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9&nttId=61387에서 2018.10.13.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6.12.).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안)**. 세종: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 김덕주(2009). 자원봉사 활동이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4(1), 123-146.
- 김범수 외(2001). **자원봉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선숙, 안재진(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성훈(2015). 청소년의 봉사 활동과 공동체 의식: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237-259.
- 김영채(2010). 창의, 인성, 봉사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사고개발**, 6(2), 1-24.
- 김육, 송미영(2006).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329-359.
- 김정배, 고원영, 정익재(1999). **21세기 청소년 자원봉사 정책과 추진방향**.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혜(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충기(2002). 제2부 현대 사회의 청소년 교육: 직업세계의 변화 전망과 대학생의 진로 지도. **한국의 청소년문화**, 2, 265-299.
- 김한구, 안성호, 정하성, 황택주, 권중돈, 이창수 외(1997). **자원봉사론, 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출판사.
- 김혜진(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유형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8, 195-214.
- 김희수, 최정선(2015). 교육봉사활동이 예비유아교사의 현장참여의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1-19.

- 뉴스1(2018.10.18). **청소년부터 직장인까지...뿌리깊은 '왕따'에 눈물**. <http://news1.kr/articles/?3453689>에서 2018.12.25. 인출.
- 류기형, 박경일(1998).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구조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8, 309-336.
- 문성호, 정경은, 한지연(2009).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 과정 연구: 근거이론 적용. **청소년연구**, 16(3), 181-208.
- 문영희(200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복지교육의 이론적 함의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 학회논문집**, 28(1), 123-144.
- 민인식, 최필선(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 STATA 학회.
- 박관숙, 김성희(2012). 청소년 자원봉사의 이타성과 이기성, 진로성숙도,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5(2), 117-136.
-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2016). 부모의 소득계층별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237-263.
- 박재숙(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정희, 김지민(200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 회지**, 4(1), 85-103.
- 박현정, 이진실, 이용석(2015).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행정 학연구**, 33(2), 235-257.
- 백순근, 김혜지, 홍미애(2013). EBS 강의가 고등학생의 교과별 사교육비와 영역별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4(1), 137-162.
- 부산교육시교육청(2018.3.). **2018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 서봉연, 김원영, 김경식(2016). 체험활동, 사회과 성적 및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4(3), 635-663.
- 손호성(2018). 이중차분 (Difference-in-Differences) 추정기법의 개념 및 응용. **한국행정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4739-4754.
- 송영명(2011). 특목고 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자아탄력성, 학업적 유능감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3), 647-669.
- 안재진, 김선숙, 이경상(2017).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유형이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9(1), 85-107.
- 양창삼(1998). **조직행위론**. 서울: 대영사.
-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광우, 이미숙, 이승미, 홍원표, 김현철, 유병구, 서지연(2010).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

별 창의적 체험활동 모형 개발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금룡, 권기환(2011). 자원봉사 동기와 동기준족 및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83-111.

이성은(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13-355.

이성철(2014). **창의·인성교육의 시작과 완성은 봉사활동이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804863>에서 2019.1.4. 인출.

이종원, 모상현, 강현철, 정윤미, 한지형(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혜숙, 김윤재, 이유섭, 박남오, 송노원(2013). **자원봉사론.** 서울: 박영사.

전명숙, 박선녀(2016).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228-237.

정규석(2002). 학생 봉사 활동 제도에 대한 평가와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연구, 18,** 73-95.

정동욱, 김영식, 이성은, 양민석(2013).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과교실제의 시행이 교수-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4),** 259-282.

정종우, 문성호, 정경은, 문호영, 한지연(2008).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효과성 진단과 발전방안.**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10주년기념 연구보고서.

조휘일(1999).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흥익재.

크레존(2018.12.10.). 창의인성교육넷 홈페이지 <https://www.crezone.net/>에서 2018.12.10. 인출.

허성호, 정태연(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43-164.

허정철(2013).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56-364.

Althaus, R. P., & Rubin, D. (1970). The computerized construction of a matched sampl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6(2),* 325-346.

Angrist, J. D., & Pischke, J. S. (2009).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J.

Austin, P. C. (2011). An introduction to propensity score methods for reducing the effects of confounding in observational studi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6(3),* 399-424.

Billig, S., Root, S., & Jesse, D. (2005).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service-learning on high school student: civic engagement.* Colorado: RMC Research Corporation.

Brookhart, M. A., Schneeweiss, S., Rothman, K. J., Glynn, R. J., Avorn, J., & Stürmer, T.

- (2006). Variable selection for propensity score model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3(12), 1149–1156.
- Cohn, S. (2008). Making objective facts from intimate relations: the case of neuroscience and its entanglements with volunteers.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21(4), 86–103.
- Hanushek, E. A., & WoBmann, L. (2006). Does educational tracking affect performance and inequality? Differences-in-differences evidence across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116(510), C63–76.
- Ho, D. E., Imai, K., King, G., & Stuart, E. A. (2007). Matching as nonparametric preprocessing for reducing model dependence in parametric causal inference. *Political analysis*, 15(3), 199–236.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s, NJ: Prentice-Hall.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Jacob, B. (1996). *Service-learning in higher education: Concepts and practices*. CA: Jossey-Bass.
- O’dea, J. A., & Abraham, S. (2000). Improving the body image,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of you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 new educational approach that focuses on self-esteem.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1), 43–57.
- Rhoads, R. A. (1998). In the service of citizenship: A study of student involvement in community service.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9(3), 277–297.
- Roberts, P., & Yang, A. (2002). *Kids taking action: Community service learning projects, K-8*. Center for Responsive Schools Incorporated.
- Rosenbaum, P., & Rubin, D.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41–55.
- Rubin, D. B. (1973). The use of matching and regression adjustment to remove bias in observational studies. *Biometrics*, 29(1), 185–203.
- Sheckley, B., & Keeton, M. (1997). *Improving employee development: Perspectives from research and practice*. Chicago: CAEL.
- Super, D. 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y*, 1(1), 2–20.
- Wade, R. (2000). *Building bridges: Connecting classroom and community through*

service-learning in social studies. New York: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Westreich, D., Lessler, J., & Funk, M. J. (2010). Propensity score estimation: neural networks, support vector machines, decision trees (CART), and meta-classifiers as alternatives to logistic regression.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3(8), 826-833.

- * 논문접수 2019년 2월 7일 / 1차 심사 2019년 3월 12일 / 2차 심사 2019년 5월 14일 / 게재승인 2019년 6월 7일
- * 전현정: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평가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사업운영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연구 분야는 다층모형 및 인과효과 연구, 종단자료 연구 등이다.
- * E-mail: jeonhj@cnu.ac.kr
- * 정혜원: The City University at New York 조교수를 거쳐 현재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연구 분야는 고급다층모형, 성장모형, 종단자료 연구 등이다.
- * E-mail: chw7@cnu.ac.kr

Abstract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 on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Students: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

Jeon, Hyeonjeong*
Chung, Hy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y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the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y. To this end, different-in-different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adapted to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rom Wave IV (10th grade) to Wave VI (12th grad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fter controlling covariates related to volunteer activities,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identity,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on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ident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dditionally, after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ense of community and the career identity due to volunteering activity participation.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it was found that voluntarily participating group had higher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identity than involuntarily participating group. This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identity for high school student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effective volunteer activity promotion policy were discussed.

Key words: Volunteer Activity, Motivation for Volunteer Activity, Sense of Community, Career Identity,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

* First author, Research & Business Operation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